

한국 과일 UAE로 본격 수출시작



두바이지사

작성자_ 배정은, 설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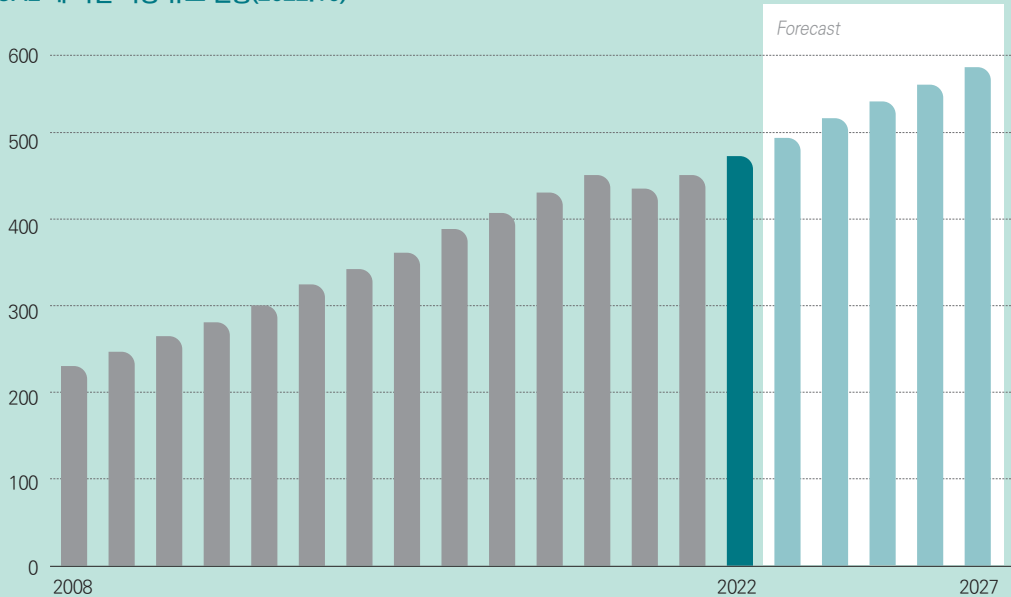


UAE 과일 시장 규모 현황

2022년 UAE의 과일 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47만 톤을 기록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통계센터에 따르면 2019년 현지 농작물, 과일, 채소 총 생산량은 52만 톤에 달했다. 현재 UAE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80%는 전 세계에서 수입되고 있다.

UAE 내 과일 시장 규모 현황(2022.10)

(단위: 천 톤(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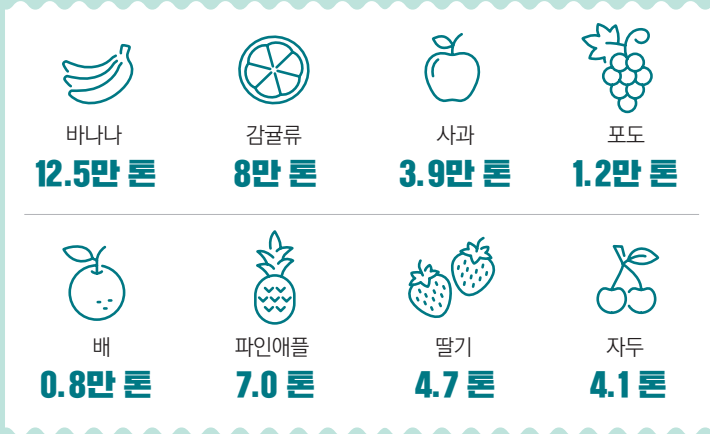


*출처: 유로모니터 (www.portal.euromonitor.com)



UAE 과일 시장 규모

2022년 UAE 품목별 과일 판매량은 바나나가 12.5만 톤으로 제일 높다. 다음으로 감귤류가 8만 톤, 사과가 3.9만 톤, 포도가 1.2만 톤, 배가 0.8만 톤을 차지한다. 기타 과일은 15.2만 톤을 차지하며 파인애플 7.0톤, 딸기 4.7톤, 자두 4.1톤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 과일 판매 실적 2022

(단위: 1천)

구분	바나나	감귤류	사과	포도	배	기타
금액	125.5	80.0	39.3	11.9	8.6	152

* 출처: 유로모니터 (www.portal.euromonitor.com)

한국의 對아랍에미리트 과일 수출 규모 현황

반대로 한국의 對아랍에미리트 수출은 감소세를 띄고 있는데,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23.4만 달러이다. 특히, 19-20년도 때 54.3%로 대폭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출 장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팬데믹 여파로 어려운 세계 경제 속 타 국가 과일 대비 높은 한국 과일의 가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對아랍에미리트 신선과일 수출액

(단위: 천 달러, t)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증감률
금액	317.1	168.7	135.9	157.1	234.2	▼6%
중량	107.5	52.6	35.7	21.5	25.2	▼25%


* 출처: KATI 농식품 수출정보 (https://www.kati.net/index.do)

UAE 내에서 고가품으로 인식되는 한국 과실류

한국 과일은 UAE에서 수입되는 타 국가 과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예시로 2023년 10월 기준 한국산 배는 500g에 AED 42.00(한화 약 15,540원)으로 거래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산 배는 500g에 AED 8.10(한화 약 2,997원)으로 약 5배 가까운 차이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최아랍에미리트 수출 과일 가격 비교

	자두		배	
원산지	 한국	 스페인	 한국	 아르헨티나
금액	AED 23.63 (한화 약 8,743원)	AED 13.25 (한화 약 4,903원)	AED 42.00 (한화 약 15,540원)	AED 8.10 (한화 약 2,997원)
중량	500g	500g	500g	500g

UAE 한국 과일 유통 현황

2023년 10월 기준 UAE 내 한국 과일은 포도류와 배 위주로 진출되어 있다. 시장조사 결과 UAE 내 한국 과일은 현지 유통체인과 한인마트, 도매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종류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AE 내 한국 과일 유통 현황

유통 품목명	기업명
샤인머스켓	Waitrose & Partners, The Fresh Markets, 1004 Gourmet
배	OneMart, Jin Food, The Fresh Markets, 1004 Gourmet



UAE 내 과일 수요 증가

UAE는 사막 지역의 더운 기후와 물 부족 등 농업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 이후, 꾸준한 노동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점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과 질 좋은 과일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UAE에서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약 70,000헥타르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대추야자 생산에 몰려있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UAE는 높은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업이 가능한 수직농장을 운영중이며 에미레이츠 항공에서는 자체 수직 농장 Bustanica에서 재배한 과채류를 항공 기내식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채소류이며 과일은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일의 수출 전략

“한국 과일의 고급화 전략”

K-Food의 국제적인 인기 영향으로 샤인머스켓, 배, 딸기, 토마토와 같은 한국 과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한국 과일을 판매하는 곳은 주로 한인마트나 아시아마트로 대부분 현지 한인들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농식품을 알리기 위한 현지 식품박람회 참석과 시식 행사, 현지 K-Fresh zone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한국 과일이 현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과일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대형유통매장에서도 한국 과일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인마트 뿐만 아니라 UAE 대형유통매장인 Spinneys와 Waitrose 매장에도 한국 샤인머스켓이 입점되었고, 나주 배와 제주 감귤, 딸기 등 당도 높은 프리미엄 등급의 한국 과일들이 현지에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스테비아가 첨가된 토마토 등 현지 과일과 차별화된 품질로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



두바이 Vegetable Souq에 위치한
K-Fresh Zone

“한국 과일의 새로운 어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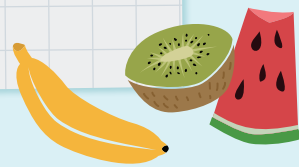
한국 과일은 UAE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로 신선함을 준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국인들이 화채를 만들어 먹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해시태그도 영어나 한글로 ‘화채’라고 써놓고 한국어 표기법 그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화채에 대하여 한국의 간식 ‘Korean Fruit Punch’ 혹은 한국의 차가운 과일 샐러드라고 소개하고 있다.



Korean Fruit Punch



*출처: 밈미디어(<https://mememedia.co.kr/meme-trip/article/50351/>)



Insight

최근 한국산 과일이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며 배, 유자, 딸기, 포도(샤인머스켓)와 같은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타 국가 대비 당도와 품질에 큰 점수를 받고 있다. 중동 지역 또한 거점인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지역으로 점차 수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 과일 수출의 가장 높은 장벽은 가격경쟁력으로, UAE 현지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입 과일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다. UAE 현지 대형유통체인들은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품질이 다른 제품들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만큼 UAE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업체들은 등급이 높은 과일들을 선별해 패키징 고급화와 같은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